

한마음인가, 두 마음인가? March 21

• 마태복음 5:8, 21:28-32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삽니다. 나를 비워 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면, 깨끗함과 더러움이 자연스럽게 분별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 함과 더러움으로 구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내 마음속에 떠다니는 죄와 욕망의 부유 물을 정직하게 확인하고 흘려보내는 소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모두 비워 내십시오. 결국, 청결한 마음은 주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 제일(God First)의 인생을 지향한다면서도 실제 삶은 전혀 다릅니다. 마치 포도원에 일하러 간다면서 다른 곳에 간 맑아들처럼 말입니다. 반면,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고 물으십니다. 나조차 내가 잘살고 있다고 스스로 속을 때가 있습니다.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부족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 하나님은 우리가 복 누리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다고 하신 것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이제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히 4:16).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언제 어디에 있든 그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보니 내가 할 일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세상과 우리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마음의 사람입니까,
두 마음의 사람입니까?

- ① 실제 삶을 보았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 ② 세상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을 보고 있습니까?